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취미로 야구를 시작했다. 공을 좋아해서 축구와 농구, 당구, 족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했지만, 야구는 주로 '시청'하는 것에 만족했던 종목이다. 운동역시 자신과 맞는 것이 있어서인지 주로 적극적인이고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는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야구 경기라는 것을 해 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투수로 나서 '완투'했던 기억인데, 경기 후 한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번에 야구를 시작한 데에는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경기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타출도 아직은 좋은 편이다. 직접 선수로 뛰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야구라는 스포츠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점이다.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야구 선수들은 거의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식으

백넘버 51

로 약간의 조소가 담긴 표현이다. 그런데 야구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체력을 요하진 않지만 매우 섬세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나 공을 잡고 던지는 것, 심지어 주루를 할 때 베이스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격을 하면서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무엇보다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축구는 한두 사람이 잘 못 뛰거나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축구 경기에 퇴장을 뜻하는 '레드 카드'가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야구 경기는 아홉명의 선수가 수비와 공격 때 자신의 자리와 타석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비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날아오는 공을 온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타석에 들어서서라도 투수의 공을 보고 치는 것은 자신만의 몫이다. 물론 투수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소위 강타자의 역할이 큰 것은 맞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퍼즐을 맞추듯이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구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가 가능하다. 투수와 포수, 내야수와 외야수 등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 유격수처럼 순발력과 강한 어깨가 더 요구되는 포지션이 있는가 하면, 1루수처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자리가 있다. 타선 역시 1번부터 9번까지 나름의 배치와 이유가 존재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구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야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세 명이 아웃되지 않으면 이닝이 끝나지 않는다. 축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끝이 난다. 후반전에는 힘이 있는 선수가 더 많이 뛰어서 경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구는 각 선수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어려운 순간이나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걸어갈 때에야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듯이 상황은 바뀔 것이다.

내 유니폼 뒤에 새겨진 백넘버는 51번이다. 51세에 야구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금은 신발과 헬멧 외에 글러브와 배트 등 대부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축구나 농구를 할 때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생각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심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한 것들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가을이 깊어 가고 있다. 울가를 단풍잎은 유난히 깨끗하고 붉다. 이제 이 아름다운 뽕뽕 잎들은 자신의 힘을 다해 떨어질 것이다. 땅에 떨어진 잎은 흙과 함께 나무 주위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 다시 나무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원할 것이다. 조건 없이 내어 주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받는 것 같고, 자신을 희생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각이 서로를 비교하여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게 하고, 끝

없는 욕심과 경쟁으로 서로를 짓밟도록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좋고 나쁨이라는 감각의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주저앉아 지혜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리석음의 삶으로 변질되기가 일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마태오 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늘나라의 비유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서는 열 처녀를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고 구분한다. 어리석음과 슬기로운의 기준은 등과 함께 준비해야 할 기름이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리석다고 말한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은 아마도 저녁 무렵이니 등불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하는 그 시간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불을 밝힐 등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등을 밝힐 기름의 역할은 신랑을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처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열 처녀 중 다섯은 등을 환하게 밝힐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일

어리석음과 슬기로운

까?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아름다운 옷과 갖은 치장을 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옷과 멋진 치장은 밝히려 등불이 없으면 보여줄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멋진 턱시도가 아니라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종종 화려한 결혼식을 다녀온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복이 어때네, 음식이 어때네' '신부 옷이 비싼 거네' '답례품이 그저 그러네'라고 평가한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며 그 아름다움은 그 삶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 줄 때 환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 사랑과 희생과 나눔으로써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기름이었다. 혼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복음은 전하는데,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오 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 것들이 밟고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 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어리석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데서 나오는 것이며, 슬기로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삶으로 살아 내서 얻어지는 결과일 것이다.

기고



오경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광주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신종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상태이다.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모두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사회적 거리, 마스크와 손 씻기 등을 잘 지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염병, 기후, 환경 등의 변화로 불확실성한 미래를 살아 가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과제는 저출생이다. 내년도 여성 가족부 예산으로는 1조 1789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5.3%가 증액되었다. 자녀양육 및 가족 지원 확대는 물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가족 돌봄

희망찬 미래의 가족 공동체를 바라며

을 넘어 공동체적 사회 돌봄 서비스에 예산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및 가족 정책은 희망찬 미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 문화 조성 과 맥이 닿아 있다. 여성 진화 정책과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정책으로 가족 돌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가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성 및 가족 정책은 국가의 생존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의 구성원의 원동력이 국가 경쟁의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 구성원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소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출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저출생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본부'가 출범하였다. 이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문 교육을 받고 손자·손녀를 돌보며 육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하는 '아빠 육아 참여 교

실',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가사 활동을 위해 '요리하는 청춘'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제가 평등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 남녀를 떠나서 온 가족이 자녀에게 정성을 들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진정한 평등 가족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 저출생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찬 마음을 가져 본다. 신종 바이러스로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 이러한 때 여성, 청소년, 가족에 권익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여성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진정 어린 소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K-방역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나, 너, 우리가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건강한 나라에서 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유학 비자 이용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가 불법체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학업 대신 돈벌이에 나서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를 받고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2만 3631명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5년 5879명에 비해 5년 새 네 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6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5%가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일탈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이 최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은 몽골인 A(26)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광주로 거

주지를 옮겨 일용직이나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급기야 광산구의 한 주민텔에 침입해 가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목포해경이 합성 마약을 투약·매매한 혐의로 붙잡은 베트남 출신 B(20)씨도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로 들어왔으나 학업 대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퇴학 통보를 받았다.

불법 체류 유학생 증가는 국내 대학들이 입학 정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문대·대학교·대학원 등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이 5315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유학 비자가 불법 취업이나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당국도 불법 체류 유학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판장 비좁아 고기가 썩어 나갈 판이라니

요즘 목포시 해안동 목포수협 위판장에 는 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처럼 가을을 조기 풍어로 어획량이 급증했지만 막상 위판장에 와 보면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설이 비좁아 제때 위판을 하지 못해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출하마저 늦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판장에 나온 어민들이 만선의 기쁨보다 위판 차질로 분노가 치민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앞선데 덮친 격으로 얼음 공급 차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위판장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삼학도 공원과 사업'과 '여객선 부두 확충 사업'도 얼음을 공급하는 쇄빙 시설이 철거될 예정이어서다. 부두 확충에 따라 목포수협은 연말에 북항의 서남권 전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로 이전하면서 현 부지의 쇄빙함 한 기를 철거해야 한다. 목포항 어선의 얼음 50%를 공급하는

민간업체 쇄빙탑도 삼학도 공원과 사업으로 조만간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 사리(15일) 조업에 필요한 목포항의 얼음은 6만 각(1각당 130kg)이라고 한다. 북항으로 이전하는 목포수협이 자체 제빙 시설로 2만 2600각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민간업체의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필요 얼음량의 63%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어민들은 북항의 목포수협 위판장에 대해서도 새 시설이기는 하지만 수산지원단지 조성 예산이 당초보다 45% 가량 줄어 위판장과 냉동·냉장 시설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수협은 뒤늦게 목포 인근에서 얼음을 확보하고 개방형인 북항 위판장을 폐쇄형으로 바꾸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목포수협이 '북항 시대'를 맞는다 해도 위판 대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증설이나 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어떤 선거든 투표가 끝난 뒤에는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종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부정 선거로 승리를 빼앗겼다고 대선 불복을 선언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부정 행위로 가장 오명을 떨친 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통령·부통령 선거이다. 정권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불법 투·개표로 인해 '3·15 부정 선거'로 불린다.

1960년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기간 사망하면 서 사실상 자유당 후보인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자유당 입장에서는 당시 85세로 고령이었던 이승만의 유고에 대비, 반드시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질렀다.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4할 사전 투표'와 투표함 바꿔치기이다. 투표 전에 투표함의 40% 정도를 이승만이나 이기봉

표로 채워 놓거나, 이기봉 표로 가득 채운 투표함을 개표 전 일반 투표함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더불어 '3인조·5인조' 투표도 행했었는데, 이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국민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3인 또는 5인이 한 조로 투표하는 것으로, 각 조의 조장이 노골적으로 자유당 후보를 찍도록 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 이러한 이유를 대서 강제로 야당 측 참관인을 몰아내고 표를 바꿔치기했다. 개표 과정에서는 정전이라며 일부러 불을

고고, 그 순간에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민주당 후보

를 찍은 표 봉지 위아래에 한 장씩 자유당 표를 얹어 전체를 자유당 표로 집계하는 '샌드위치표' 수법도 많이 사용됐다. 이밖에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자유당은 야당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을 테러와 폭력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선거 수일 전 민주당 간부가 살해당하기까지 했다.

3·15 부정 선거가 우리 현대사의 치욕이듯 어찌던 미국의 이번 대선은 미국의 흑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 부 220-0649 편집 부 220-0632 편집 부 220-0663 편집 부 220-0652 편집 부 220-0642	문화 부 220-0661 예향 부 220-0692 사진 부 220-0694 체육 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